3 -MAY 2 6
Copy ____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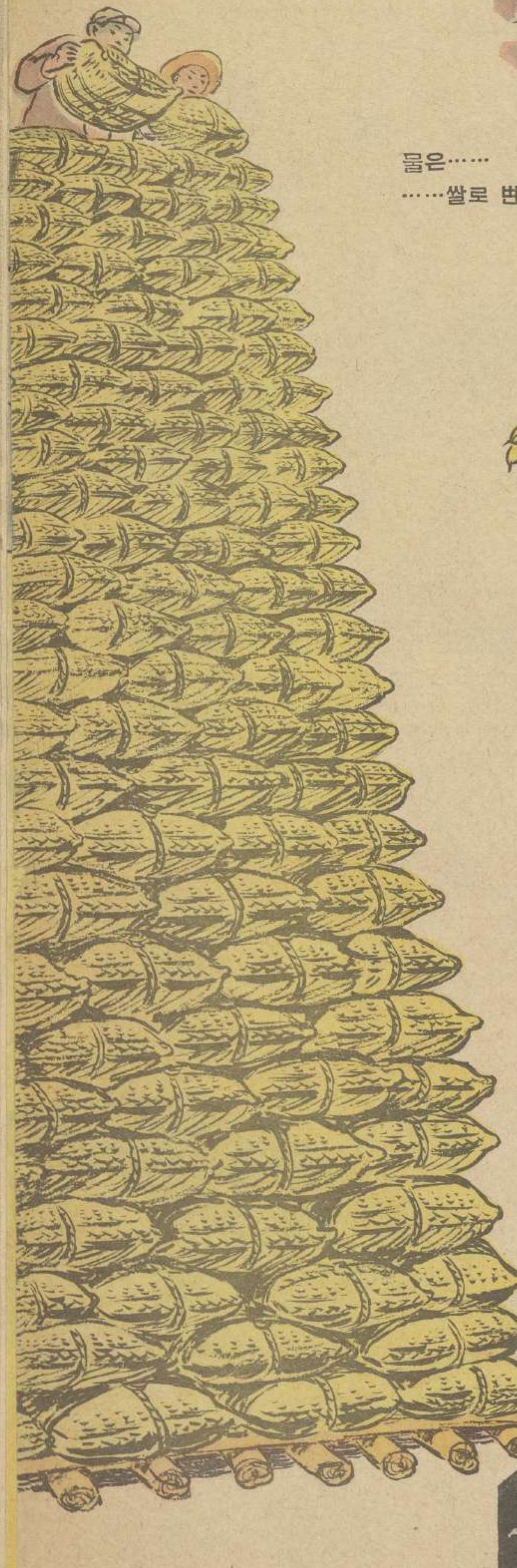
판이한 두 총화

박 승히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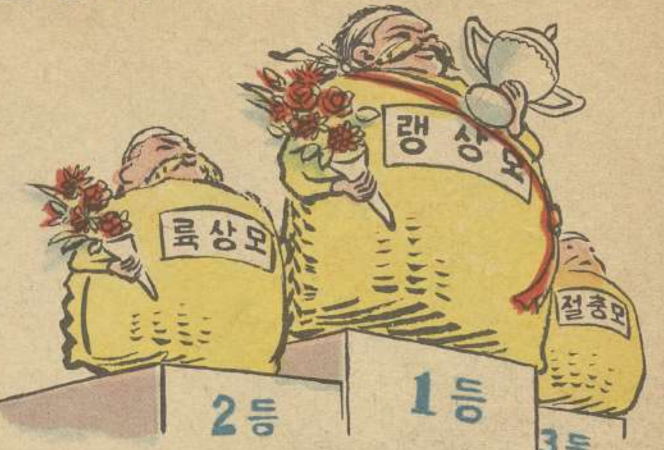
12월호 활살

1957년 (85)

옳바른 정책! 정확한 관철! 거대한 성과!



물은……
……쌀로 변하였다



분명히 그가 일등이다

식탁은 더욱
풍부해졌다

가물—협동의 힘 앞에선 견뎌 낼 수 없군

오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농촌은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는 공업에 보조를 맞추어 공업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에 의거하면서 전례 없는 앙양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금년에 우리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논 면적의 47%에 랭상모를 비롯하여 륙상모와 절충모를 실시하고 90일 간이나 계속된 류례 없이 혹심한 한재를 극복함으로써 대 풍작을 이루게 하였다.

오늘의 계획은 래일의 현실

송 용남 그림

높은 열의 높은 성과

리 영춘 그림

그 동무가 그 동무

신 흥 순

남 저어 말씀 좀 묻겠습니다.
녀 네
남 여기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댁이 어딥니까?
녀 네 이리루 곧장 가시면 새로 지은 학교가 있어요. 거길 착 돌아서면 수양버드나무 아래 드레우물이 있습니다. 그리루 쑥 들어 가세요
남 아니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가요?
녀 아니요 그 골목으로 말이예요
남 네 골목으루요
녀 바루 그 골목 왼편 세째 집입니다.
남 네 감사합니다. (가려한다)
녀 그런데 위원장 동진 지금 안계신데요.
남 그래요? 그럼 본인이래두 만나면 되겠는데,
녀 아니 위원장 찾으시는 분이 위원장 말구 본인이 또 누구예요?
남 네 사실은 제 3 작업반을 책임진 영실 동무를 좀 만나려구 그럽니다.
녀 그래요 그 동무를 왜 찾으시나요?
남 네 그 동무하구 얘기할 것두 있구 또 사진두 하나 찍어야 되겠구요.
녀 사진을요? 아니 동무하구 같이 찍는단 말이예요?
남 아니 내가 찍겠단 말입니다.
녀 실례 같습니다만 동무는 어디서 오셨나요?
남 네 난 신문 기잡니다. 들자니까 그 영실 동무의 주동적인 역할과 창발적 로력에 의해서 정당 10톤이라는 높은 수확을 올렸다기에 그의 사진과 함께 신문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녀 이그 머 그렇게 굉장하게 소개할 자료나 되나요?
남 아니 동무 그건 어떡허는 말이요?
녀 다수확이야 전체 조합원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모두가 열성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머, 우선 객토 작업만 해도 그렇잖아요.
남 객토 작업이요? 논에다 생기 있는 흙을 파 넣는 것 말이죠?
녀 그럼이요. 그리구 작년에 풀두 많이 베었지만 겨으내 퇴비를 많이 받았거던요.
남 옳지 비료'데미가 쌀'데미니까요 그러니 게다가 금비까지 해서 민'거름 우'거름에 곡식이 안될리 없겠군요?
녀 그리구 랭상모루 실한 모를 길러 내서 작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모내기를 끝냈지요
남 네 한달이나 일찍! 심는 방법은 물론 병목식 소주밀식이겠죠?
녀 그럼이요.
남 금년 봄엔 례년에 없는 혹심한 가물이 있었는 데 논물은 넉넉했었나요?
녀 시내'물이 다 말라 붙은 판인데 논이야 더 말할 것 있어요? 논'바닥에서 개미가 코를 골 판인 걸요. 그런걸 조합원들이 통틀어 나서서 급수 작업을 했지요.
남 급수 작업이요? 가물막기 말이죠?
녀 그럼이요. 뽐프루 퍼 올리구, 수차로 퍼 올리구, 용드레루 퍼 올리구, 남자들은 져 날으구 녀자들은 녀날으구……가물과의 투쟁이 대단했지요.
남 아하 그렇게 해서 이 넓은 논'벌에 모내기를 성공적으로 마쳤군요?
녀 그럼이요. 그리구 논'김은 여섯벌을 매구요,
남 여섯벌이나 매요?
녀 왜 놀라셔요? 《게으른 농민은 풀을 매지만 부즈런한 농민은 흙을 맨다》는 건 모르시누먼요?
남 아하 부즈런한 농민은 흙을 맨다? 그러니 벼가 안 될리 있습니까.
녀 아 이쯤이야 지금 공화국 어느 협동 조합이구 다하는 걸요.
남 맞었습니다. 그러기에 알곡 생산이 공화국적으로 작년보다 70여만톤의 증산을 보게 됐죠.
녀 그러기에 명년엔 우리 조합에서는 전수 랭상모루만 심기루 결정을 했답니다.
남 네 백프로 랭상모라……올해도 풍년 래년에도 풍년
녀 풍년이라는 건 해운에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달렸으니까요
남 그러니까 이러한 다수확을 위해서 제 3 작업 반장인 영실 동무의 지도적 역할이 컸군요?
녀 동문 왜 영실이만 찾으셔요? 전체 조합원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에 내시려거든 우리 조합의 이름을 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남 동무! 난 동무에게 충고합니다.
녀 충고요?
남 남이 잘하는 걸 따라갈 생각은 안하구 외려 시기하는 건 좋은 품성이 아닙니다.
녀 난 동무에게 충고합니다.
남 뭐요?
녀 집단적 력량에 대해서 과소 평가하는 그 태도는 낡은 사상 잔재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조합에선 벼 농사 뿐 아니라 밭 곡식의 왕인 옥수수 다수확에도 으뜸이요?
남 그러구요.
녀 영양단지 가식의 새 방법으루 면화도 다수확, 게다가 가축은 늘어 이게 다 조합 전체의 자랑이 아니고 뭡니까.
남 그런데요?
녀 때문에 금년 분배만 해도 알곡이 한 노력당 백여 가마니에, 현금 분배가 5만원이구 여유곡을 국가에다 집체적으로 팔아서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는 이것이 다 전체 조합원들의 뭉친 힘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신문에 소개를 하려면 이런걸 내야 될게 아닙니까?
남 물론 전반적으로도 취급하지만 모범적인 역할을 한 개별적인 농민도 소개해야죠. 동문 아마 영실 동무하구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이구먼! 하여간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소?
녀 저기 관리 위원장 동지가 오시니까 알아 보세요(간다)
남 호 그동무 참! 저어 위원장 동지 전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십니다.
남 근데 저는 영실 동무를 좀 만나려고 왔는데 지금 그동무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영실 동무요? 아 지금 동무하구 얘기하던 동무가 바로 그동문데
남 그래요? 그동무가 바로 그동무였군요? 어쩐지 얘기하는 품이? 그러니까 나한테 하던 그 얘기가 바로 다수확 경험이였군! 아하!

"대문짝 명함"

신 흥 순

요즘 남조선에는《대문짝 명함》이란 말이 있다. 명함 모양이 대문짝처럼 커서가 아니라 관권(官權)세도가 등등한 고관들의 사용하는 명함장을 가르켜《대문짝 명함》이라고 한다.

권력과 돈 있는 사람만이 떵떵거리고 잘살 수 있는 사회인지라 이《대문짝 명함》의 세도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문 대학 입학도 이 《대문짝 명함》한장이면 다 통하고, 심지어 류치장에 있는 죄인까지도 이것 한장이면 무죄 석방으로 나오는 판이다.

그러니 영업 허가 내는 데도, 장사'군이 귀한 물건 뽑러 내는데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이 《대문짝 명함이라야 맥을 춘다.

얼마 전에 서울중앙 우편국에서 배달부 한명을 뽑는데 300여명의 지원자가 리력서를 냈다. 여기에는 여불없이 시내의 모모한 유지 인사들의 추천장이 첨부되여 있다.

우편국장은 난처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뢰물 받은 것도 한두 곳이 아니요, 전화 부탁 받은 데도 여러 군데다. 게다가 안해까지 청을 드는게 아닌가?

——여보 오늘을랑 나가시는 길로 제꺽 결정해 버려요 세상 없어두 그 애는 써 줘야 돼요.

안해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재삼 다짐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 처 조카 하나 취직두 못시켜 준다면 우리 친정 켠에서 당신을 뭘루 알겠수?

——글쎄 이왕 일'자릴 구해 주려면 그런 배달부야 어떻게…

——에그 배달부구 등달부구 달다 쓰다헐 형편이 어디 됐소? 우선 급헌대로 아무데나 붙여 뒀다가 차차 좋은 자리루 옮겨 주구려!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이 제대된지 두 석달이 되도록 취직 하나 못 구하겠구…여보 그래두 친척이라고 하늘같이 믿고 찾아 오잖우 글쎄.

——배달부는 몸이 튼튼해야 백여 날텐데…그 사람은 병이 나서 제대 됐다면서?

——병두 병 나름이지 제대하구 싶어서 우정 설사약을 먹구 며칠을 굶었다질 않우, 그런게 지금은 또 없어 배곯으니 몸이 추설게 뭐요? 에그 그 두억신이처럼 허구 찾아 오는게 당신은 보기 좋우?

——그럼 이따 오거던 내게루 보내우 머리나 좀 깎구

——아 그럼이요 인제 곧 올걸이요 인제야 한근심 덜었군!

안해는 기쁜 표정으로 벽에 걸린 모자를 벗겨다 남편에게 준다.

우편국장이 터덜거리고 사무실에 오니 머리를 빡빡 깎고 얼굴 빛이 새하얀 청년 하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명함 한장을 내여준다.

받아 보니 그것은 다름아닌 《체신부》장관의 이름이 뚜렷한 《대문짝 명함》이였다. 명함 뒤'등에는 배달부건 아무거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이 간단하게 씌여 있다.

——그래 자넨 여태 어디 있었나?

——네 저는 저어 큰집에 있었습니다.

——큰집? 그럼 중앙청?

——아니올시다 저어 형무소에…

——형무소? 그럼 간수루?

——아뇨 삼년 형을 받고서

——형? 무슨 죄루?

——강도 죄명으루…

——어? 강도?

——네, 먹구 살 수가 없어서요. 그러나 인젠 형기를 다 마치고 마악 나오는 길입니다.

우편국장은 아찔하였다.

——근데 장관님허구는 어떻게 되나?

——네 매형입니다.

——아니 그 사모님은 동생이라곤 없다는데?

——네 전 저어 혜화동 있는…

——아니 그럼 세째 마나님의…

——네

국장은 한참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다가 《대문짝 명함》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는

——좋네 배달부로 일해 보게.

하고 인사 관계를 취급하는 과장을 불러 즉시 임명하라고 지시를 주는데 때마침 그의 안해가 자기 조카와 함께 방안에 들어 섰다.

추수를 끝내고 보니

—올해도 남은 것은 비'자루 뿐이구나!

박 승히 그림

리승만 도배의 반인민적 농업 정책으로 남조선의 금년도 추수는 더욱 한심한 상태에 있는바 《립도 선매》로 근근히 연명해 오던 농민들은 실제로 수확할 것이 없거나 추수를 한다 해도 지주 고리대와 리 승만 도배에게 털릴 것 밖에 남을것이라군 없다.

발광적인 군비 조달

백 인균 그림

방대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감행하고 있는 《초 긴축 정책》은 민족 산업을 전반적 파탄에 빠뜨리고 있으며 인민 생활을 한층 더 혹심한 도탄 속에 몰아 넣고 있다

유·엔과 조선문제

김 현 석

감람나무가 그리여진 유•엔의 기'발에서 상징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의지는 전 인류적인 것일 것이다.

유•엔 본부가 미국 땅에 있으며, 유•엔 회의에 모이는 사람들이 미국 호텔에 들어 미국 강률을 마신다고 해서 유•엔이 미국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아이젠하워 자신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주인들은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지향과는 전혀 다른 망상에 사로 잡혀 있으며 유•엔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마치나 자기들의 충실한 아나운사처럼 간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유•엔과 조선 문제를 놓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력사적 고찰을 해 본다면 유•엔에서의 조선 문제 토의와 관련한 백악관 주인들의 모습은 완연히 단 한개의 레파토리에 매달린 곡마단 주인의 모습이다.

곡예사의 연출이 원래 흥미를 끌기 마련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트리끄가 속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며 또 언제나 똑 같은 것이라면 아무리 곡마단에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을 찌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곡마단 광고 포스타에 눈'길도 돌리지 않을 것만은 뻔한 사실이다.

바로 유•엔에서 백악관 주인들이 조선 문제를 들고 꽹과리 소동을 빚어내는 경우가 이 경우와 꼭 같다.

오늘에 와서는 살바돌 대표에게까지도 기억이 몽롱하게 된 소위 《한국 부흥 위원단》이란 것이 바로 미국의 이 흥미없는 곡마단인바 말 타기나 통돌리기가 인제는 유•엔 본부가 있는 레이크씩세스 거리의 녀학생 자전거 타기 보다도 흥미없게 되고 말았다.

백악관 주인들은 의례 1년에 한번씩 이 레파토리를 상연시키군 하는바 이 《한국 부흥 위원단》 보고서는 이미 백악관 타이피쓰트에게는 쾌속도 솜씨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로 되였다. —다만 몇개의 새로운 수'자에만 주의를 기우린다면—

《한국 부흥 위원단》 초창기의 록음판에다 새로 적어 넣은 몇개의 수'자로 된 이 보고서 청취로서 서막을 이루는 백악관 연출 곡에는 이미 유•엔 본부 문직이까지도 흉내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였다.

여번에는 덜레스가 아니라 쥬드가 록음하게 된것만이 다를 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쏘련에 대한 판에 찍은 듯힌 중상과,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전 조선 령토에 확장하려는 주장의 되풀이다.

이렇게 카나다, 볼리비아, 딴따라의 반주 속에 미국 곡마단 곡예는 여러바퀴채 계속되였다.

천편일률의 백악관 레파토리의 일장 연출이 끝났다.

10년 간이나 계속된 이 한가지 레파토리 연출에 사다 앉힌 관중들마저 흥이 꺼져 박수 소리조차 오르지 않았다.

10년 간의 년례 행사로 된 이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연출은 네팔 대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 문제 해결을 용이케 할 수 있는 아무런 새로운 것도 포함되여 있지 않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간이나 같은 목소리로 돌아간 이 록음판은 섣그럭 소리까지 난다.

10년을 해마다 꼭 같은 년례 행사를 엮어나가는 동안에 꽹과리 반주 효과마저 해마다 가늘어져 금년에는 겨우 과반수를 넘었을 뿐

사회주의 진영 모든 나라들이 반대한 것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비르마, 타이치, 모로코, 수단, 분란 등 15개 국가가 기권으로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인도 대표는 투표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으며 4개국 대표는 아예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리하여 미국 《결의안》 채택의 10년 여일의 년례 행사는 구슬피 끝났다.

1957년 11월 18일 유•엔 총회 정치 위원회 채택이란 《장엄한》 딱지를 붙인 이 미국 《결의안》은 백악관 서류 금고에서만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남녘 땅에 덮인 그림자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전람회 출품작)
리 서우 그림

승냥이가 승냥이를 재판한다

백 인균 그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조선 인민에 대한 거듭되는 학살 만행은 미군 당국이 기만적이며 형식적인 소위 《군법 회의》들에서 범죄자들을 비호함으로써 더욱 조장되고 있다.

남조선의 一년

—남조선 출판물에 반영된—

류 계 환

금년 정초 《동아일보》의 상설 토막 풍자란인《공기총》에는 《곡정》, (통곡할 정월이란 말)이라는 년하장과 《어수선한 세상, 내 얼굴이 뜨겁다》는, 《년하장의 고백》이 게재되였다. (1월 1일 및 1월 5일)

해가 바뀔 때면 복을 누리라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 고금 동서의 통례이지만 세상 물정은 소란해 가기만 하고 집집마다에서 한숨만 늘어 가는 남조선에서는 새해에도 무슨 일이 어떻게 진전될지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여서 《년하장》도 주소를 찾아 가기가 쑥스러울 지경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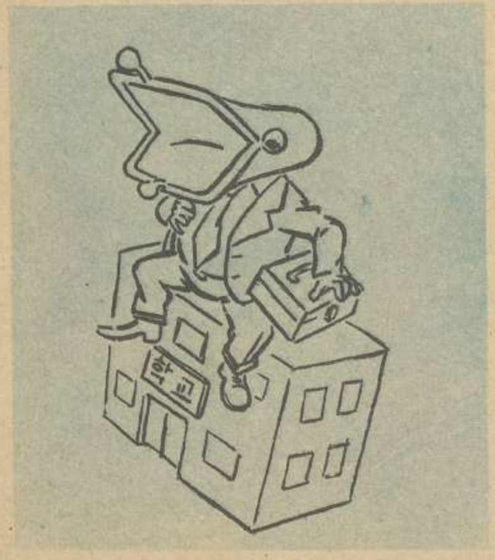
남조선의 1957년은 이렇듯 불안속에 밝았다.

출판물의 반영된 지난 1년 동안의 남조선의 사회상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새해 벽두에 《자유당》 《의원》들은 《출판물 단속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8.15 이후 10여차에 걸쳐 단행된 언론 탄압 중에서 그 최근 실례의 하나였다. 이러한 조치는 남조선 사회계의 여론을 또다시 비등케 하였는바 남조선 출판물은 《자유당》의 전횡을 다음과 같이 조소했다. 즉 《자유당》은 걷잡을 수 없는 만성 《언론 공포증》에 걸려 있는데 그의 《증상》은 《주기적 발작으로 출판물 탄압 법안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

이다. (동아 일보 2월 13일) 《출판물 단속 법안》의 제출과 전후하여 야릇한 《민의》가 출동했다. 《자유당》의 《외각 단체》 격인 《따'벌떼》와 《백골단》 의 출현이 그것이다. 반대파의 《국회 추방 운동》이 일어났고 행인들과 언론인들이 거리에서 습격을 당했다 《발작》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졸업기와 신학기 즉 3월과 4월은 금융계의 《활기 증진》 시기이다. 돈 없는 집의 아이들은 졸업도 못 했고 상장도 못 탔고 또 새 학교에 입학도 못 했다. 서울시 성동구 흥인 국민 학교에서는《특상》을 탄 아동에게 시상을 안하고 다른 아동에게 《특상》을 주었는데 그것은 선생과 사친회 간부에게 《술 대접을 못한 탓》이였다. 은행들은 신 학기에 《학교 뒤'문에 림시 출장소를 개설했다.》 (동아일보 3월 4일) 이 것은《뒤'문 입학》과 학원의 모리화를 풍자한 말이다.



5월 25일 장충단 공원에서는 리 승만 통치를 반대하는 4만 군중의 집회가 있었다. 집회는 리 승만의 테로에 의하여 깨여졌다. 남조선 출판물들은 이 사건을 《대화》에 비겼다. 이 《대화》로 인하여 전에도 만신창이던 《집회 자유》가 《전소》되고 《4만명》의 《리재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거듭된 《화재》통에 다 타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가 이날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입을 막고 여당은 귀를 막고 국민은 눈을 막으라》는 말이 남조선 지배층에서 류행되고 있는데 지배층 내부에서도 반 리 승만파에게는 말을 시켜서는 안되며 설사 말을 해도 《자유당》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으며 또 인민들은 그들이 어떤 《정치》를 하던 간에 보고도 못 본체 해야 된다는 말이다.

5월에는 또 남조선에서 《수'자 놀음》과 《통계 풀이》가 류행되였었다.

5월 28일 《내무 장관》 장 경근은 《4만 군중에는 2만 경관이 필요하다》고 기자들 앞에서 언명하였다. 남조선 기자들은 《그러고 보니 한국 치안에는 1천 만명의 경관이 필요하군》하고 장 경근의 《실천 수학》을 비웃었으며 《4만 군중의 치안에는 2만 경관이 필요한데 3명 강도의 체포에는 4만 경관도 부족하니 어찌된 셈이냐》고 인민 탄압에는 능숙하지만 강력범 단속에는 무능한 남조선 경찰을 야유하였다. 수'자의 기록을 보면 짧은 것의 기록에는 가설한지 24시간만에 한강 다리에 다섯군데나 균렬이 생기고 세곳에나 구멍이 뚫렸단 것이 있고 긴것에는 《민생고》가 《4천년》래에 처음 보는 것이라는 것이 있다. 8백년래의 물'가고, 100만

절량 농가, 전국에 70%의 결식 아동이란 통계도 있다.

6월에 남조선에서는 협잡을 일 삼는 《세무당국》도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해괴한 2건의 《매매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기도 관재국》에서 인천에 있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 부평동에 있는 공동 묘지를 각각 《보건 주식 회사》와 《사료 회사》에 팔아 먹은 사실이 그것이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지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남조선 《관리》들은 자기 보다도 더 솜씨가 능숙하다고 눈알을 굴리더라는 것이다.

《관리》들의 솜씨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장 택상의 표현을 빌면 《공무원의 부패는 불치의 병이 되여 마치 중국 국민당 정부의 말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는바 《우에서 벗겨 먹고 중간에서 뜯어 먹고 말단에서 잘라 먹는》 것은 남 조선에서는 《례사》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7월에 남조선에 온 미국 《나나 통신》기자까지도 《한국의 관공청은 도적의 소굴》이라고 한 것은 이런 사태를 념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만행이 거듭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8월에는 특히 그것이 우심하였다. 8월 2일, 10일, 12일, 25일, 29일, 31일에 인천시 옥련동, 서울 중구 북창동, 인천 회현동, 서울 영등포, 부산 제3 부두 등지에서 6건의 미군 만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21일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읍에서는 라병 환자들에 대한 리 승만 당국의 속수 무책으로 라병 환자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일시에 10명이 사망하였다. 거듭되는 자동차 전복, 접종하는 살인 사건등으로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죽어 갔다. 맞아 죽고 찔려 죽고 깔려 죽고 하여 《사람의 목숨은 파리의 목숨보다 더 값 없이》 되였는바 동아일보는 《아직도 한국에 산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고 반문하고 있다.

9월과 10월 11월에 들어 서면서 남조선 사람들의 처지는 더 악화되였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추석 명절을 지났으며 (9월 7일 《동아일보》) 《눈으로만》 김장도 담그고 《꿈속에서만》 파동용 구공탄 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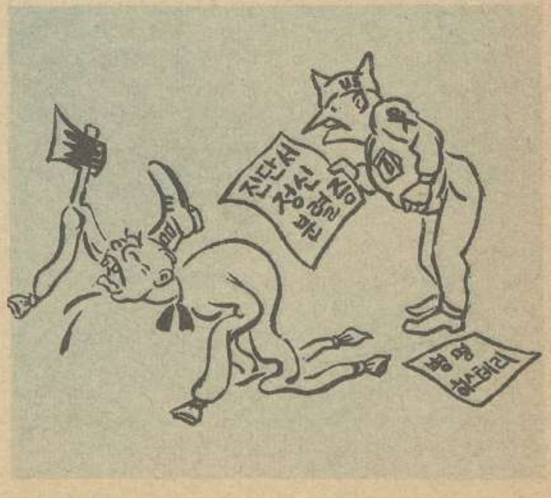
전횡과 살륙과 빈궁과 기아——남조선의 1년은 이렇게 새고 지나 갔다.

이것은 사람들을 미칠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경향신문은 남조선에 20만명의 정신병 환자가 있다고 썼다. 이것은 《정신 분렬증 환자》만을 계산한 것이고 《정신 박약증》 환자까지 합하면 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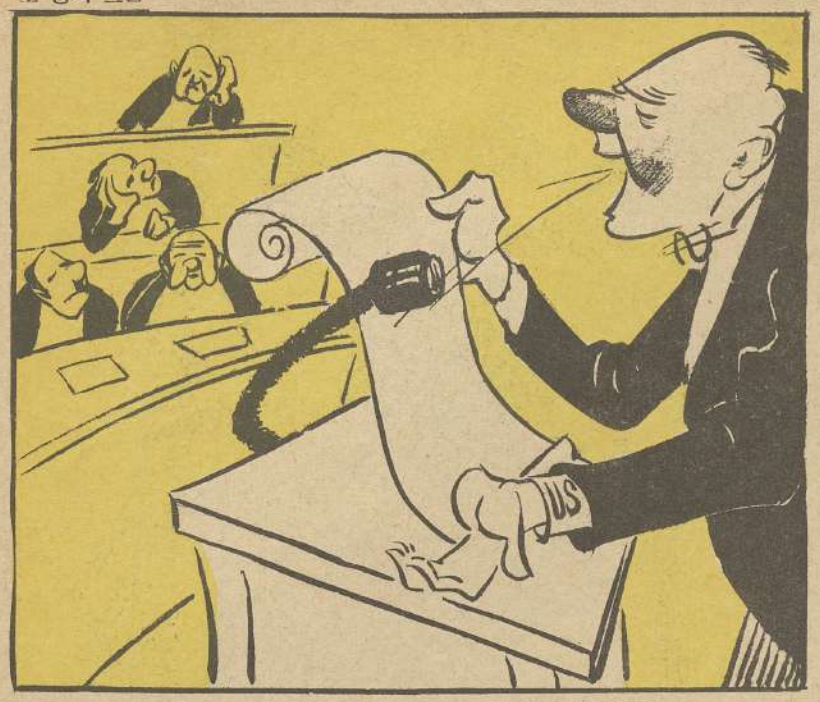
《생존 경쟁에 의한 것과 전시 기분에 의한 물심 량면에 피해와 공포》가 이처럼 막대한 정신 병자들을 산생기킨 《잠재 리유》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출판물은 썼다.

《남한은 이미 히스테리 시대가 지나고 정신 분렬 시대가 온듯한 감을 준다》고



《유엔 한국 재건단》의 두가지 보고

조 명식 그림



—우리는 남조선에 원조를 주었습니다

—원조를 미끼로 더 많이 가져 왔습니다

《유엔 한국 재건단》의 단장인 미국 장군 콜터는 지난 7년간 남조선에 제공한 《경제 원조》가 19억 1천 4백 90만 딸라에 달한다고 떠들었으나 미제 침략군을 피수로 하는 《유엔군》이 남조선 인민들로 부터 강제 징발 략탈한 29억 6천 여만 딸라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궁여 지책

리 연

리 승만 괴뢰 정부 《문교부》는 전 《리왕직 박물관》에 보존되여 있던 《비장의 국보》들이 지난"전쟁 기간 혹은 그후 시기"에 《분실》되였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여 관계 당국이 리 승만의 엄숙한 《유시》를 받들고 그것들을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금년 여름 삼남 지방을 휩쓴 미증유의 풍수해 때문에 또한 많은 《국보》들이 《류실》 혹은 《분실》되였다고 《공보실》을 통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다. 소위 《분실》되였다고 하는 《국보》들 중에는 금으로 만든 력대 임금의 옥새와 인궤 및 수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문헌들이 들어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괴뢰 정부 《재무부》는 리 승만의 소위 《초 긴축 정책》과 금 회계년도의 예산 편성에서의 소위 수지 《균형》을 위하여 은행들이 《국고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부를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광고》하는 두가지 사연의 막 뒤에는 매국노 리 승만 역도가 연출한 다음과 같은 졸렬한 연극이 꾸며져 있는 것이다.

× × ×

《이봐!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유당의 만능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한 것이며 또 나 대통령으로 말하면 미국 신사들과의 교제상 엄마간의 《기밀비》가 필요하단 말이야…그리고 명년도의 《국회 의원 총선거》 전에서 물쓰듯이 아끼지 말아야 할 우리 자유당의 선거 운동 기금을 생각할 때《군자금》의 념출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는 없게 되였단 말이야 내 말을 알아들 듣겠는가? … 재정 적자가 고무 풍선처럼 늘어만 가는 이판에 국고에서만 번번히 빼낼 수는 없는 일이고…》

별안간 《경무대》에로 호출을 받고 리 승만의 으숙한 뒤'고방에 모여든 괴뢰 국회 《의장》 리 기붕과 괴뢰 정부 《외무부 장관》 조 정환은 안면 신경통의 발작으로 몹씨 씰룩거리는 리 승만의 불턱만을 쳐다 보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정부의"장관"들이야 많지만 나의 고굉지신으로서야 자네들이 쌍벽이란 말이야》

이때 뱀 같은 실눈에 간사스러운 웃음을 띠우고 리 승만의 눈치만 넘겨보던 리 기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각하의 분부하신 뜻을 받들어 몇가지 안들을 이미 저이들끼리 의논하여 보았습지요…우선 야당파들의 군자금 루트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미 반대파에 가담한 수입업자들에게는 《밀수 통제》라는 구실밑에 수입 허가증을 주지 말 것을 지시했고 딸라의 교환도 중지시켰습지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주어 명년도 《국회 의원》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은행들이 소위 《국고 정리》라는 구실밑에 일체 대부를 중지하도록 정부 명령을 발표케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당 계렬의 기업체들은 이통에 밀수입과 은행 융자를 독점할 수 있으니 단단히 한몫 볼 수 있습지요 이거야 꿩먹고 알먹는 판입니다. 그리고 정부 고관들 뿐만 아니라 은행 두취들과 유력한 회사 사장들도 자유당 중앙 위원의·자리를 미끼로 모주리 우리 편에 포섭하여 놓았으니…이렇게 되면야 각하의 숙망인 종신 대통령도 념려 없읍지요. 헤 헤…》

조마조마 리 승만의 낮 색만 살피면서 자라 모가지를 쪼그리고 앉았던 조정환이 이때 리 승만의 낯짝이 헤번떡 해지는 것을 보자 기름에 번들거리는 턱수가리를 들고 조심조심 입을 열었다.

《사실인즉 이미 오래전부터도 여러번 해먹은 일이지요만 이번에도 또 한번 미국 상사에서 우리의 왕실 박물관에 보존되여 있는 국보들을 좋은 값으로 사겠다는 간청이 있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고관님들의 간곡한 주선도 있고 하니 이때 각하께서 한번 더 결단만 내리면야 우리의 "군자금"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 × ×

《경무대》를 하직한 리 승만의 《심복》 들은 꾸며진 연극 대본대로 《맹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연극의 막뒤를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인민들의 서리'발 같은 눈초리 앞에서 리 승만 역도가 귀신도 모르리라고 믿었던 그 《묘책》들은 인차 꼬리가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최근 리 승만의 《자유당》이 명년도의 《선거》 운동 기금을 념출할 목적으로 괴뢰 정부와 결탁하여 다량의 《정부》소유의 중석을 극비리에 미국에 수출하여 얻은 딸라를 다시 《자유당》계렬의 수입업자들에게 비법적으로 넘겨주어 2중 3중의 폭리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서 리 승만의 《반대파》로 지목되고 있는 장택상까지도 공개 서한을 발표하여 오늘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들이 《자유당 간부 명함 한장으로 거저나 다름 없는 낙은 리자로서 몇 10억환의 돈들을 은행 뒤'문으로부터 내다 쓴다》고 지적한 다음 《자유당은 이런 방법과 이런 돈으로 지난번의 정 부통령 선거를 치루었고 또 래년의 선거 자금도 마련해서 돈과 술과 뢰물로써 유권자들을 매수하려 들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한편 미국의 신문들은 위싱톤에 있는 력사 박물관의 《동양실》에 몇해 전부터 계속 늘어가는 것에 첨부하여 새로히 진렬된 많은 《한국의 국보》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보도하였다.

이리하여 궁한 남어지 못하는 짓이 없는 리 승만 매국도당의 추악한 마각은 완전히 들어 나고 말았다.

괴뢰군 강제 징소집

《동양 통신》이 괴뢰 국방 당국의 자료라 하여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 18일 전라남도 한도에서 만도, 동도 《병사구 사령부》가 발부한 《징집 령장》은 1,712명 인바 그중에서 응소자는 겨우 25%이고 징집 해당자의 75%라는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강제 징집을 반대하여 도주하였다.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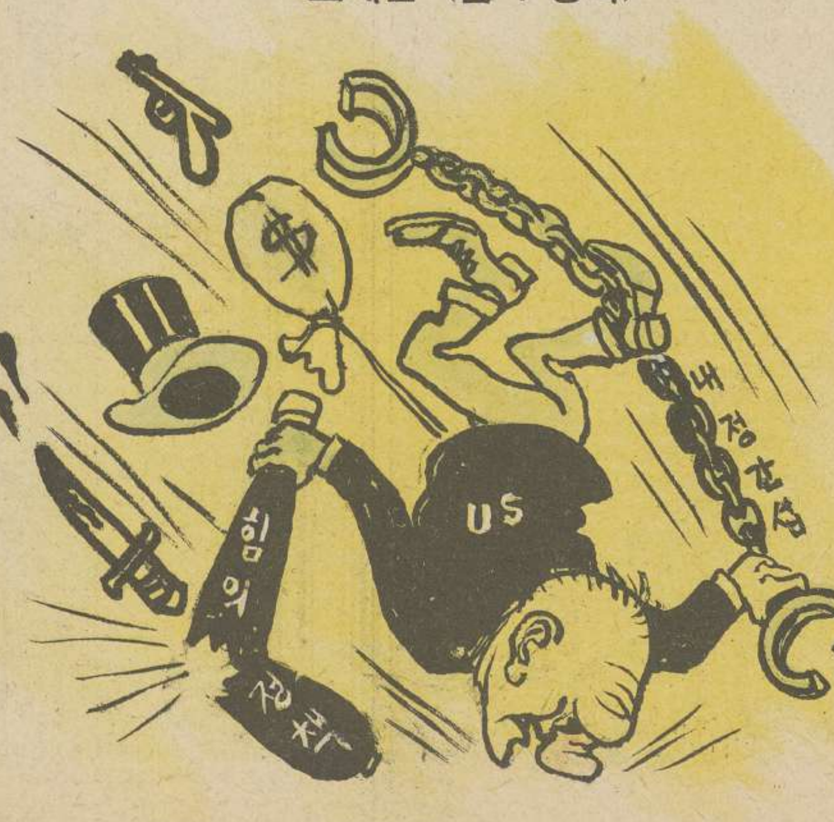
쏘련은 우주권 정복에서 세계에서 첫 개척자이다!

—우리 둘의 산보를 전세계 사람들이 쳐다 보누 만요
—우리에 대한 찬양을 보내는 것이지요

쏘련은 곡물 생산에서 1913년보다 3배나 장성했

1913년—나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성과로군

코깨진 《힘의 정책》



박 승히 그림

인공 위성과 워싱톤

전 인 철

《쓰뿌뜨니크》(로어로 위성이란뜻)《쓰뿌뜨니크》…

워싱톤의 지배층은 벌써 두달 동안이나 이 말을 되씹어 외이면서 공포와 불안에 사로 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전 서방 세계가 지금 《쓰뿌뜨니크》《쓰뿌뜨니크》 하면서 일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 헤매고 있다.

미국 신문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미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곤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포증을 참다 못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1월에 들어서자 련방 두번이나 전국 라지오 텔레비죤 방송을 통하여 《눈물의 호소에 류사한 웨침》(영국 신문들의 표현에 의한다면) 으로 《전 자본주의 세계는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하며 이 《위험》을 치유하기 위한 《묘약》을 발견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는 쏘련의 《쓰뿌뜨니크》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딸라를 물쓰듯 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며 (딸라는 맥물과 같이 무제한한 것도 아닌데……) 수학을 잘 하는 고등 학교 학생들을 발견하여 《장학금》도 줄 것이라고 하였으며 마사추세쯔 공업 대학 학장 킬리안 박사를 자기의 과학 고문으로 임명한다고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어느 한 저명한 박사님께서는 미국은 이제 《유치원부터 과학을 가르쳐야겠다》고도 조급히 서둘렀다. 물론 인공 위성은 단순한 딸라의 집계표는 아닌 것이며 유치원 아이들의 작난'감도 아닌 것이다.

11월 24일에는 미국 수소 폭탄의 수석 설계자인 텔러 박사가 《지금 미국이 직면한 사태는 슬프고도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쏘련의 과학을 따라 잡는데 얼마만한 시일을 요할른지는 알 수 없다》. 고 하면서 《아마도 그것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10년을?!》 우둔성의 천품이라도 갖고 있지않는 한, 과연 10년을 두고 공포증에 사로 잡혀 산다는것은 상상만 하여도 눈앞이 캄캄해 질 일이다. 그뿐 아니라 사실인즉 그 10년간에 쏘련의 과학은 일층 더 발전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공 위성의 어머니라고도 할 대륙간 탄도 로켓트가 지난 8월 쏘련에서 완성되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워싱톤의 지배층은 《로씨야인들이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스스로 값싼 위안에 잠겨 보기도 하였다. 제 1호 인공 위성이 발사되자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인공 위성에서 쏘련과 경쟁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 보기도 하고 미국 해군 작전 참모장은 《쏘련의 인공 위성은 누구나 발사할 수 있는 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떠들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을 하려고 했건 말았건 쏘련의 인공 위성 발사로 말미암아 미국의 소위 《힘의 우세》에 관한 신화가 산산 쪼각으로 깨여지고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로 막을 수는 없었였다. 또 《누구나 발사할 수 있는 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허장성세를 해보았댔자 아직 연구실에서 《뱅가드》(선구자)란 훌륭한 이름만 가지고 뒹굴고 있는 미국의 인공 위성을 야구 몽둥이로 (미국 출판물들에 의하면 "뱅가드"는 야구공만 하다는 것이다) 쳐서 하늘에 띄여 올려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였다.

두개의 쏘베트 인공 위성은 벌써 수백회식 지구를 공전하였지만 워싱톤의 상공에 검은 구름 한장 드리운 것도 아니며, 뉴욕의 마천루 꼭때기를 스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톤에 지배층이 밥'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은 《힘》만 믿고 《힘》이면 만사가 다 되는 줄 알았던 그들의 침략 정책 전반이 이제 쏘베트 인공 위성으로 해서 완전히 확증된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앞에서 루각 무너지듯 파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구라파 《동맹국》들이 이제는 미국이 하는 대로만 따라 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우려 밑에 나토의 침략 정책 전반을 재 검토할 것을 요구하여 나서게 됨으로써 영국 국회 의원 죠지 브라운의 표현대로 한다면 《나토 동맹은 4분 5렬될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40년 전만 하여도 쏘련보다 백년은 앞섰다고 하던 미국이 이제 그 쏘련보다 10년은 뒤떨어졌다고 미국의 과학자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

미국 출판물들 자신이 지금 《서구라파 제국 간에는 아이젠하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여도 초 인간적 방안을 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한 것이 우연한 고백이 아닌 것이다.

이미 깨여진 항아리에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여! 쓰뿌트니크! 쓰뿌트니크를!…아멘!》이것은 오늘의 워싱톤의 장송곡이다.

쏘련만이 대륙간 탄도 로켓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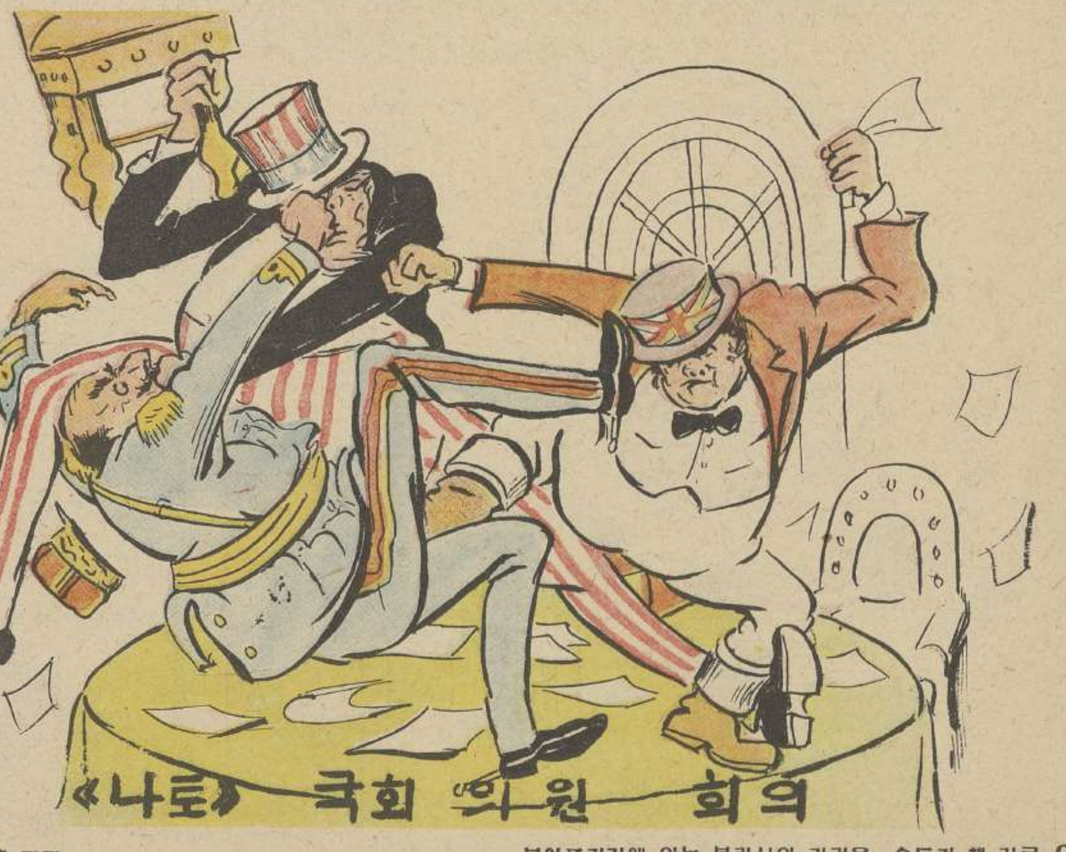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을 모르느냐

박 승히 그림

쏘련은 오래지 않아 공업 생산에서 미국을 앞 설것이다

—나는 150년 걸린 것을 그대는 20년에 따라 잡는구나!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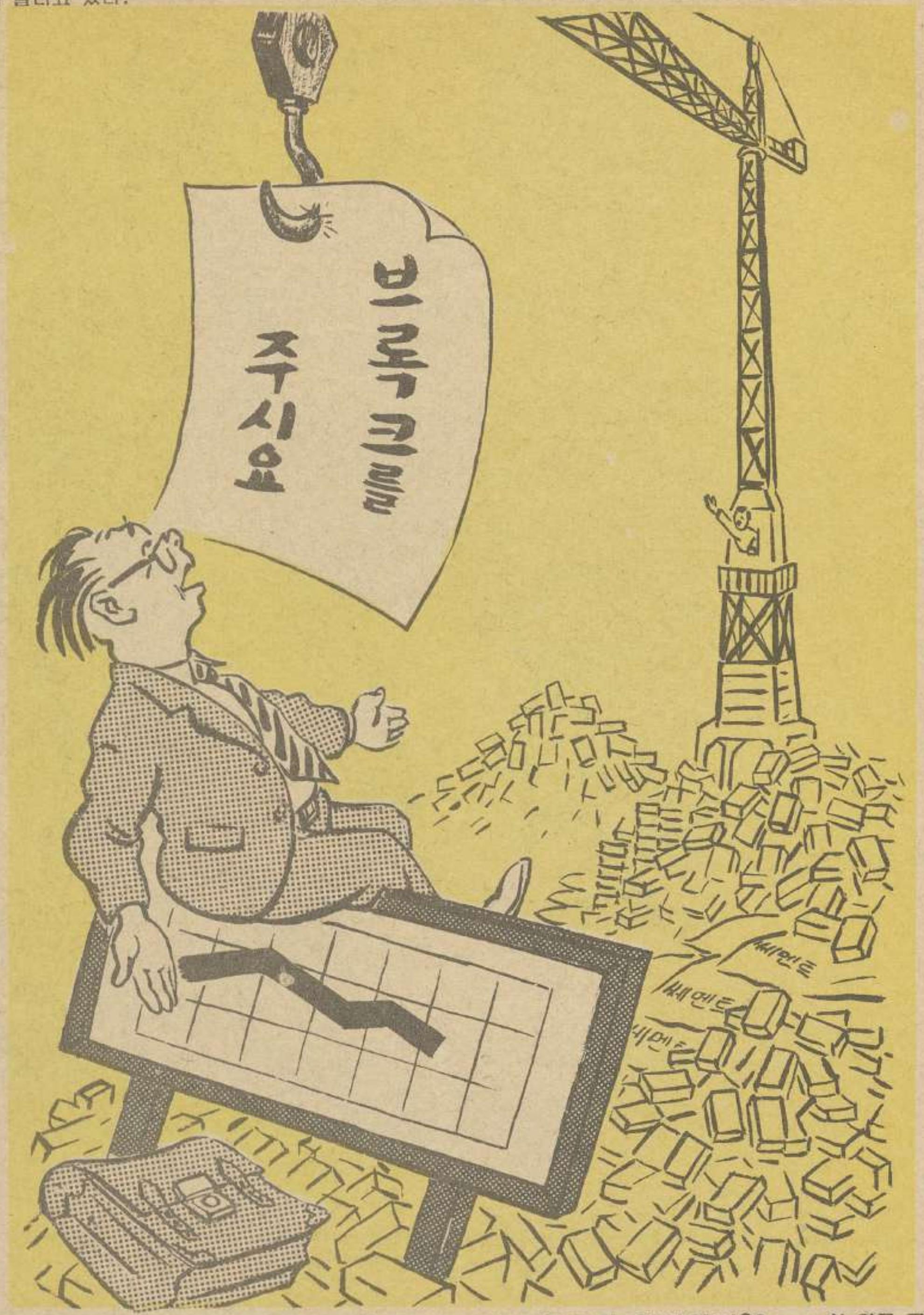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북아프리카에 있는 불란서의 리권을 송두리 채 가로채려는 미제의 노골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튜니샤 문제》는 미, 영과 불란서간의 모순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는바 11월 15일에는 《나토》(북대서양 동맹) 국회 의원 회의에서 불란서 대표는 분개하여 퇴장하였다.

일부 기본 건설 일'군들은 당장 하기 쉬운 벽돌 브록크에 대해서 생각을 덜 돌리고 있다.

코막고 답답한 일



—보시다 싶이 벽돌 뿐이지 브록크가 있어야지?!　　최 영근 그림

이제 부터

건설 건재 공업성 평양 건설 관리국 산하 제 4트레스트 운수 부장은 오늘도 보조 공장에서 만든 브록크를 자동차에 싣고 몇개의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겨우 브록크를 공급하고 돌아온 길이다.

——제길할 브록크 장사는 힘이 들어서 못해 먹겠는걸

운수 부장은 혼자서 이렇게 중얼 거리면서 수건으로 이마를 닦는 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제 1트레스트 19호 구획 조립식 주택은 장경강 층막 브록크가 없어서 1층에서 작업을 멈추어야 했고 어떤 현장에서는 계단 몇개가 없어서 지붕을 씨우지 못하고 있어야 했으니 그 사이에 탑식 기중기에 대해서는 매일 꼬박 꼬박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20여일이나 멈추어 두어야 했다.

조립식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던 반당 종파분자 김 승화의 여독이 청산되지 못했던 관계로 평양 건설 관리국과 그 산하 기업소들은 새로운 것을 도입함에 소극적이며 사업 조직이 질서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보조 직장을 정비하고 그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성령 제 8호가 각 트레스트에 하달된지도 근 1년이 되여간다. 성령에는 이미 집행 중에 있는 보조 공장의 기본 건설을 금년 3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건설 부재를 대량 생산할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여 있었다. 그러나 제 1트레스트나 제 2 제 4 트레스트들의 보조 공장은 아직까지도 그 준공 기일만 연장하고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재 생산을 위한 기본 건설을 굼뜨게 하여 온 결과에 콩크리트 브록크는 43%, 벽돌 브록크는 50% 슈라크 브록크는 60%를 겨우 실행하였을 뿐이였다.

부재 생산이 이처럼 락후한 탓으로 건설은 여전히 일체식으로 진행되여야 했고 따라서 로동자들은 생산 능률을 올렸다고 하나 로동 생산성은 올리지 못하고 계획은 미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였다. 따라서 시공된 공사의 조립성을 본다면 콩크리트 브록크는 콩크리트 총량의 28%이며, 벽돌 브록크는 거이나 실행하지 않았고 벽돌 축조에서 슈라크 브록크를 적용한 것이 겨우 6%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지난 기간의 기본 건설은 여전히 일체식의 계속 성행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다.

년초에 세운 부재 생산 계획의 미달은 건설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은 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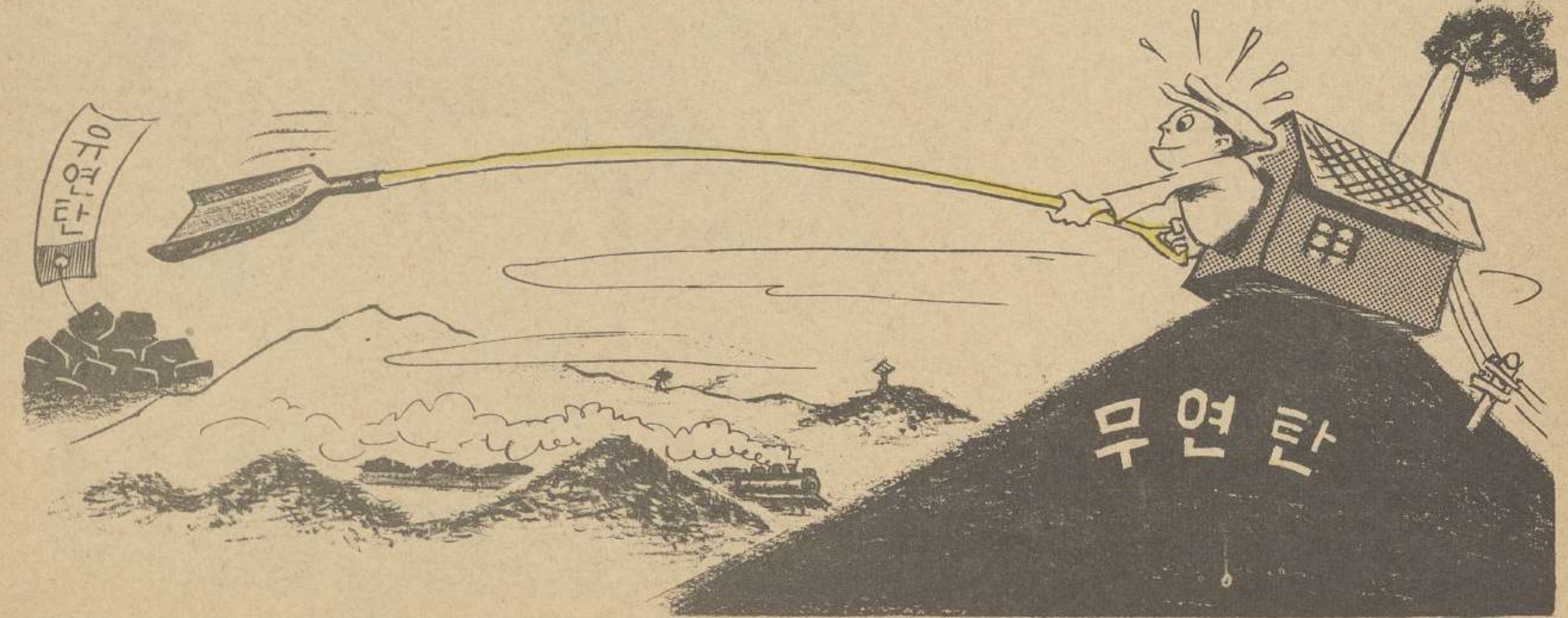
제 2트레스트가 담당한 김대 구획에서는 층막 브록크가 없어서 7~8동이나 벽돌을 축조하지 못하고 있어야 했으며 신창동 5층 주택은 마감층까지 조립이 끝나야 할 오늘에 와서도 브록크가 없어서 1층을 겨우 축조하고 있으며 제 1트레스트 19호 구획 조립식 주택은 한때에는 벽체 경량 브록크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여야 했었고 오늘에 와서는 장경강층막 브록크 때문에 1층에서 또한 작업이 멈추어져야 했다.

부재 생산이 부족하게 생산되는 형편에서 현장 실정에 맞게 생산 조직이 합리적으로 되여야 할터인데 현장은 현장대로 보조 공장은 보조 공장대로 너는 너구 나는 나라는 격의 사업 조직이 지속돼 왔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3~4개의 브록크가 없어서 마감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였으나 제 2트레스트 조차장 부근 분공장에서는 브록크 수백 립방이 체화되여 있었고 제 4 트레스트 보조 공장에서는 브록크가 체화되여 트레스트 운수 부장이 자동차에다 브록크를 싣고 이 현장 저 현장 찾아다니면서 공급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관리국에서도 트레스트 책임 간부들도 모두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듯 이 부문 일'군들이 조립식 건설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시나 뗄구고 또 밑에서는 그저 하라고 하니 흉내나 내는 식이였으니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일——

먼데 것을 써야 맛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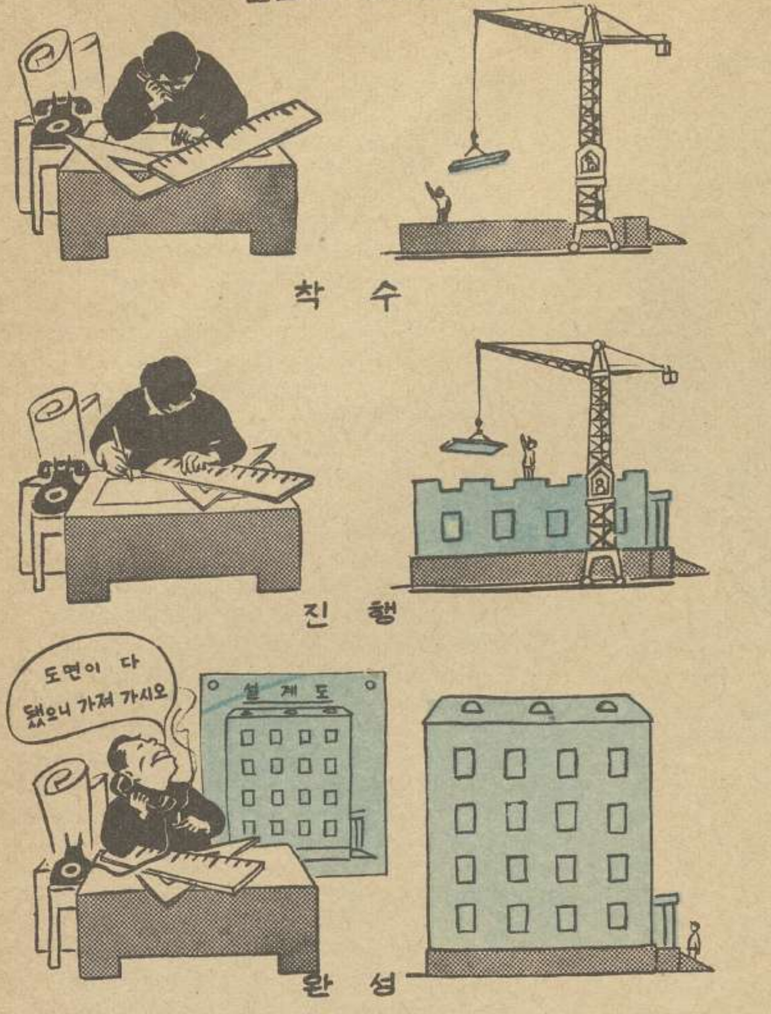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가까운 곳에서 무연탄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남포 제련소를 비롯한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동해안에서 산출되는 유연탄을 때는 보이라를 사용하고 있다.

평양시 설계 연구소에서 일부 건설 대상들에 대한 설계 작성을 시공에 선행시키지 못함으로서 건설의 질과 속도에 지장을 주고 있다.

"보조가 맞았다"



송 용남 그림

원인과 결과

남포 지구 일부 기본 건설 부문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의를 묵살하고 건설에서 보수성을 고집하고 있다

낡은 지도는

낡은 방법을 지속한다

최 영근 그림

하품하는 기중기

빠스를 타고 평양시를 한번만 돌아도 수없이 눈에 띠이는 것은 고층 건물 사이에 우뚝 서 있는 탑식 기중기다.

전에는 별로 본 일이 없는 기계건만 지금에 와서는 애들까지도 건설 현장에서 쉼새 없이 짐을 올리고, 내리고 수십, 수백명의 노력을 대신하는 아주 귀중한 기계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안다.

그러나 가끔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낮잠 자고 있는 기중기를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일부 무책임한 지도 일'군들이 시공 조직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무계획적이며 돌발적으로 기계를 배치하는 데로부터 고성능 기계들을 이리 저리 끌고 다니기도하고 또 작업 현장에 아무러한 준비도 없이 기계를 배치함으로써—기계는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얼마 전에 제 2 트레스트에서 담당한 평양 제 33, 34중학교와 신창동 군관 아빠—트 현장에서는 탑식 기중기를 조립하다가 도중에 위치를 변동하여 재차 조립을 하게 하는가 하면 물자들을 되는 대로 하차시킨 결과는 탑식 기중기의 아무 거리 권내에도 들지 못하고 2중 운반을 하게 하여 숫한 시간과 로력을 랑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조직은 평양 건설 관리국적으로 볼 때 설비들이 극히 낮은 수준에서 리용되는 데 끝이고 있는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 3.4분기간 고성능 기계들의 리용률을 본다면 탑식 기중기는 73.3% 소형 기중기는 28.8% 엑쓰까와똘은 49.9% 불도젤은 58.5%의 극히 락후한 형편에 있다. 이것은 대채로 시공 조직이 기계 조직과 배합되지 못한데서부터 숫한 기계들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공의 기계화를 웨치기는 하면서도 사업 조직을 하지 않은데로부터 기계는 세워 놓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기계를 대신하여 사람의 로력을 수없이 쓰고 있다. 3.4분기간 평양 건설 관리국 산하 사업소들이 실행한 전 작업량에서 22.8%, 콩크리트 혼합 작업은 29%, 적재 적하 작업은 13.4%, 미장 작업은 15.4% 이러한 정도이다. 이처럼 숫한 고성능 기계들과 미장 기계를 가로 타고 앉아서 로력 부족과 미장공의 부족을 웨치면서 기계 미장의 도입을 겁내는 자들은 업은 아이를 3년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아직도 멀었나부네

평양 전기 공장 주물공 신 덕화 동무는 몇번 주저한 남어지 다사금 동 공장 공무 동력 현장을 찾아 갔다.

—어떻게, 될 가망이 있을까요?

—글쎄 좀 기다리래두 그래, 밥'등의 불부터 꺼야 할 게 아니요.

신 동무는 금년 1월에 14kg 고정자 조형기를 창의고안한 후 벌써 몇달을 두고 쫓아 다녀 보기도 하고 직장장을 통해서 여러번 제의도 했으나 감감 소식이여서 가갑한 나머지 또 공무 동력 현장을 찾아 갔던 것이다. 몇달전에 하던 대답이나 오늘하는 대답이 꼭 같고 보니 더할 말도 없이 그저 돌아오고 말았다. 그후 몇달이 또 잠잠하게 지나갔다. 신 동무는 그 후로는 지도부에 맡겨 버리고 거의 단념하고 있던 7월 어느날 자기가 창의 고안한 것이 제품으로 되여 나왔다. 주물 직장에서는 긴장된 시험 작업이 진행되였고 그 결과 환성이 올랐다. 자기들의 창의 고안품의 성공은 이 직장 로동자들을 기쁨에 들끓게 하였다.

종전에는 15명의 로력을 가지고 하던 작업을 지금은 6명의 로력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숙련공도 손 쉽게 할 수 있게 되였다.

이 경험은 주물공들을 고무하였다. 오랜 주물공 김 명룡 동무와 기수 김 창호 동무는 금년 7월에 조형 다짐기를 창의 고안하였다. 시험해 본 결과 종전에 비하여 절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람이 일일히 쇠몽치로 다져야 하던 것을 기계로 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여서 곧 설계서를 공무 동력에 넘겼다. 그 후 반년이 지나갔다.

창의 고안품을 기다리는 주물공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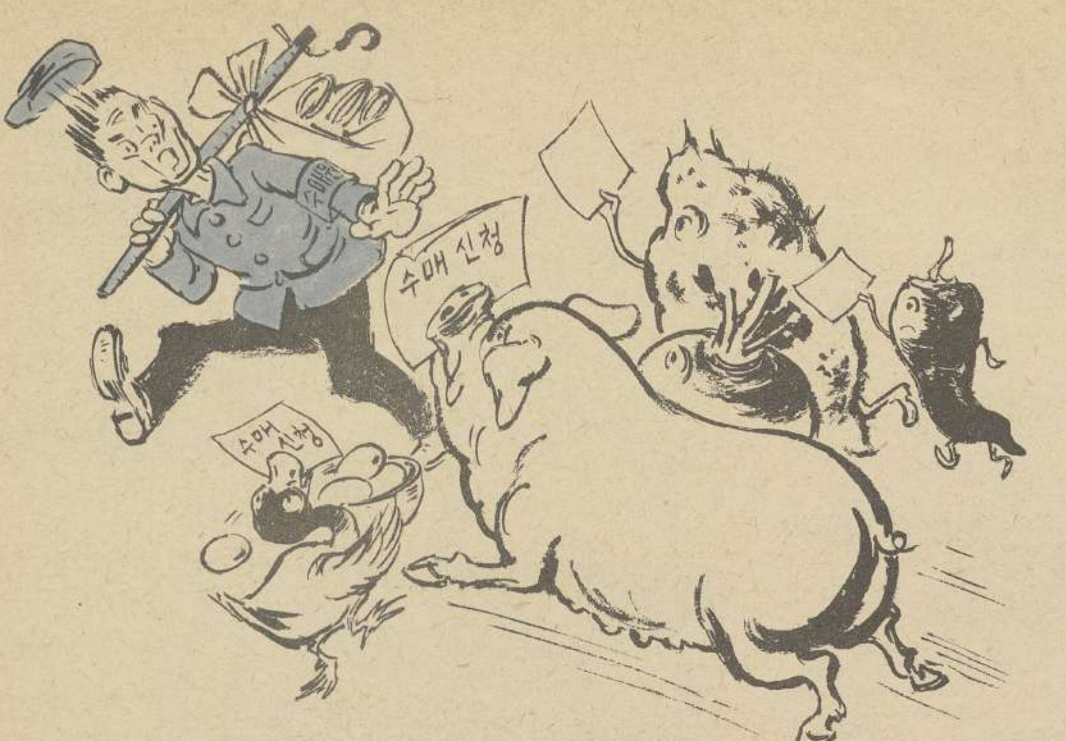
—여보게 아직도 멀었나부네——

—년말도 가까워 오니 눈앞의 생산이 바빠서 그런 것까지 언제 손이 돌아 간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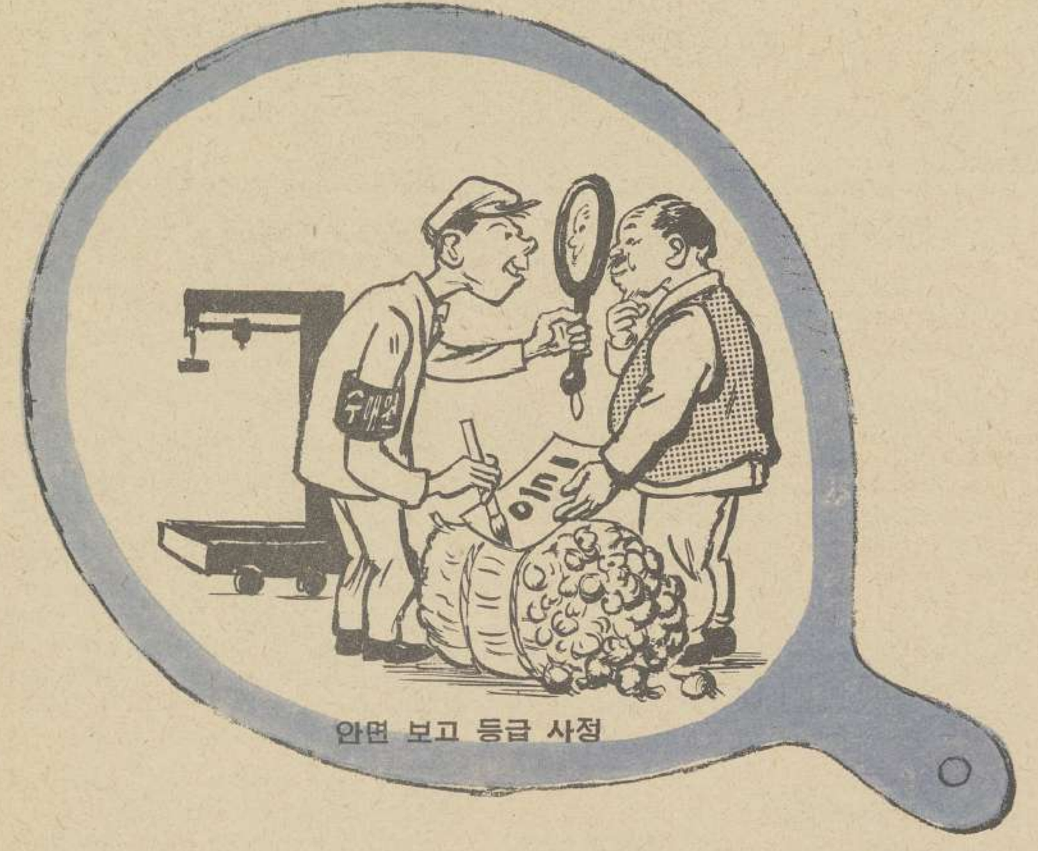
× × ×

이곳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창발성을 제고함으로써 모든 난관과 애로를 타개하고 생산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12월 전원회의의 경험을 잊었는지 목전 생산에만 성급히 서두르고 있다.　　김 상 애

소비 협동 조합 강남군 련맹 수매 사업소에서



다루기 쉬운 것만 수매



안면 보고 등급 사정

리 영춘 그림

잘 사는 살림

유 항 림

풍년이 들어서 속'셈으로 손곱아 보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분배를 탔다. 칠성 령감네도 물론 모두 기뻐했다.

《인젠 박 구장네 살림살이 같은 건 부럽지도 않게 되였으니까…》

칠성 령감은 입버릇 같이 중얼거렸다.

박 구장이라 함은 토지 개혁 때까지 이 마을에 살던 벼 담불이나 겨우 하던 지주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전에 박 구장이 범 같이 으르렁거리고 각다귀 같이 빨아 들여서 마당에 쌓아 올리던 소작료 낟가리보다 못지 않은 곡식을 분배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게다가 또 전에 박 구장네는 령감과 아들들만 이밥을 먹었을 뿐 안'식구들은 사명절을 제해 놓고는 언제나 조밥이 아니면 보리밥이였다. 그러나 지금 이 동네에서는 어느 집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이밥은 귀한 것이 아닌 걸로 되였다.

박 구장은 아들 삼형제 중에서 둘째 하나를 겨우 중학교를 졸업시켜, 면 서기로 만들었지만, 칠성 령감네는 전선에서 전사한 맏아들과 지금 함께 데리고 농사를 짓는 둘째 아들은 고중을 마쳤고 지금 군 농산 기술 강습에 가 있는 세째 아들은 초중을 졸업했다. 고명딸인 숙희도 초중을 마쳤다. 칠성 령감의 감회는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분배를 받아놓고 온 집안이 다 기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안 식구들의 속'셈이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우선 늙은 내외의 의견이 서로 같지 않은 점이 많다.

《에그, 령감한테 저금 통장을 맡겼다가는 곱더러 애봐 달라는 격이지, 장날마다 술추념 생각만 할 게구, 틈만 있으면 투전판에까지 끼려구 할테니까!》

《에이 참, 로친네 정신 좋은 것두 탈이지, 어찌다 한번 실수를 한걸 가지구 십년이나 두구두구 넉두릴 하니!》

령감은 이렇게 투전에 대해선 기급을 해서 부인하려 들었지만, 술에 대해선 한 마디도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장날마다 장에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는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의레 하는 일이거니 생각하는 편이였다. 사실 전에 박 구장이 바로 그렇게 하군 하는걸 보고 부러워 했던 것이다.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또 딴생각이 있었다. 언젠가 박 구장네 궤짝 속을 본 일이 있다. 무명필이며 광목이며가 재곡재곡 들어 있던 것을──. 그래서 기회가 있는대로 천만 사 들이려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 창수는 웃군한다.

《어머니 뭘하러 천만 자꾸 사들일려구 하십네까?》

《얘야,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너희들 시집 장가 보낼 날두 멀지 않은데 준비가 없어서야 되겠니?》

《해마다 더 좋은 천이 더 싼 값으루 나오는데 미리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살림살이를 잘 하려면 우선…》

《지금 사 둔 건 이담에 가면 구식 천이 돼요. 5개년 계획 말에 가선 해마다 한사람 앞에 열 일곱 메터씩이나 돌아가게 된다는 걸 모르시는구만요, 그리구 지금 당장 쓰지도않을 걸 사두면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두 인젠 살림살이를 문화적으루 꾸릴줄 알아야 해요. 멋지게 말이죠.》

이렇게 타이르군 하는 창수 자신도 숙희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군 하는 걸 보면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걸 바로 리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애, 숙희야, 우리두 한번 문화적으로 멋지게 살아 보자꾸나!》

《누가 오빠더러 그걸 말라구 해요?》

《누구나 우리 집에 들어서면 야 하구 눈이 둥글해지도록 말이지.》

《어떻게요?》

《멋 있는 전축을 하나 사다 놓자는 말이다. 라지오두 듣구 축음기두 듣구…》

《비싸지 않아요?》

《비싸긴 하겠지만 뭐 거나 하나쯤 못 사겠니!》

숙희는 다시는 말이 없다. 도대체 숙희는 이 풍성풍성한 분배를 받아 놓고도 어떻게 했으면 또는 무얼 사 주었으면 하고 말하는 일이 없다. 동무들이 뉴똥치마나 모본단 저고리 같은 것을 입고 나올 때면, 어디서 샀느냐 얼마 주었느냐 하고 자꾸만 물어 보는건 사실이지만──

그러던 중에 어느날 강습에 가 있던 세째한테서 편지가 왔다. 이런 때는 의레 창수가 랑독을 한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 일전에 실습으로 ×× 협동 조합에 나갔다가 아부님 얼굴모습과 꼭 같은 로인 한분을 만나서 오래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름난 모범 조합원이였습니다. 그분은 래후년에 문화 주택을 새로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돈사와 퇴비'간을 새로 짓는 등 살림을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해 아주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부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만큼 모두들 계획에 의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조합 경리도 전망 계획에 의해 발전하고 있으니 조합원들도 전망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자신성 있고 즐거운 일입니까!》

편지를 듣던 중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거 선전실장이 하던 말과 꼭 같구먼.》

령감도 한마디 했다.

《고놈이 건넌산 꾸짖기로 아비를 책망하는 셈이로군! 그래! 업은 아이한테도 길을 묻는다는 격이 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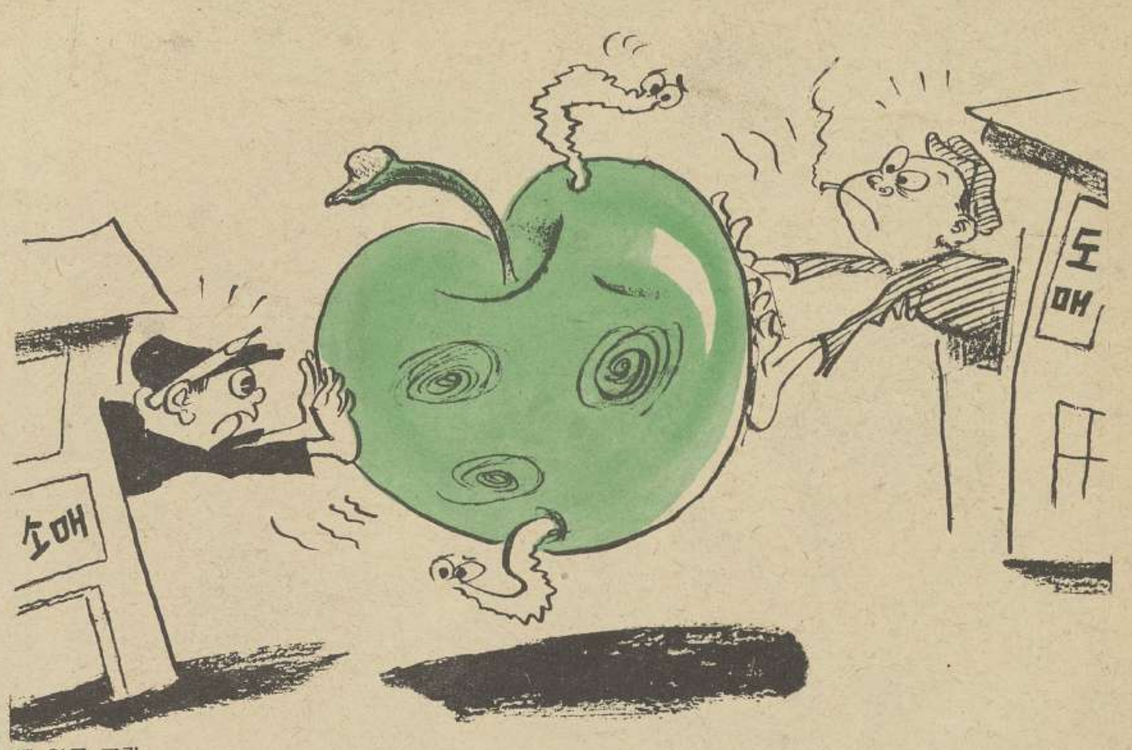
창수는 편지를 읽다 말고 중얼거렸다.

《그렇긴 그래, 분배가 많아졌다고 기분에 떠서 망탕 써서는 안되지.》

숙희도 한마디 보탰다.

《세째 오빠는 집안 식구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말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과



백 인균 그림

평양시 식료품 도매 상사에서는 사과 수매에서 검사 제도와 인수 제도가 불철저한 관계로 등외품도 많이 섞인 사과를 인수하여 많은 체화를 가져 왔다. 그런 일방 소매망들에서는 좋은 사과만을 요구하면서 상점에 사과를 품절시키는 현상도 가끔 볼 수 있다.

악덕 상인의 이모저모

△ 탈세자

민흥동 13반에 사는 김 인숙은 크림 제조업 허가를 냈다. 크림 제조업은 수지가 맞았다. 그러나 장사에 익숙해진 그는 리를 더 많이 볼 생각이 났다.

《괜히 고지식하게 장부에 맥일거 있나, 원료를 헐값으루 산 것두 비싸게 산 걸루 맥이면 리를 조금 본 걸루 될건데! 그럼 세금을 조금 물거거든》 인숙의 이 계획은 지체 없이 실천에로 옮겨졌다. 그는 탈세에 재미가 났다.

《매상고를 적게 해서 맥이자. 그럼 세금이 더 낮아질테니까》

그리하여 그는 수매 기관에 환치로 수매시킨 것은 부득이 장부에 올렸지만 현금 거래한 것은 전부 누락하게 하였다.

배가 부를대로 부른 그는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하여 뇌를 쓰는 것 조차도 당치 않은 일로 생각했다. 그래 그는 크림 제조업도 그만 두고 모은 돈을 개인 못 공장에 고리대를 놓고 가만히 누워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기생충적 생활은 우리 제도와는 너무나 먼 것이니 그의 《부귀 영화》가 오래 계속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재미난 골에 범난다

동구역 신리동에 사는 가구 상인 최 린보는 생각하였다.

《트레스트에 있는 그 사람을 좀 먹이면 자재를 거저 구할 수 있는 걸 돈을 주고 사서 쓰다니, 내가 참 고지식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만 못해서 사 쓰겠소?》 하고 안해가 만류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야 수완이 없어서 그러지》하고 호통을 뺐다.

그는 평양 제 13 건설 트레스트 업무부에 있는 자재 인수원 엄 모를 시켜서 국가 목재 8 립방을 빼냈다.

《벌써 그렇거지》

재미가 난 그는 더욱 악착스레 국가 재산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우선 교통성 중앙 연구소 경리원 최 태윤에게 돈을 먹여 결탁했다.

《그 사람이 재료를 얼마나 갖다 주겠기에 돈을 그렇게 먹이우?》

하는 안해의 말에 최 린보는

《가만 있으라우. 저놈을 든든히 손에 넣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는 최 태윤과 결탁하여 국가 물자인 와니스(책상 우에 칠하는 것) 두 도람과 합판 170매를 훔쳐 내 왔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날고 뛰는 수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재산을 훔쳐 사욕을 채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우둔한 짓이다.

리 운 봉

△ 《명철》한 두뇌

한때 서구 문구사 부지배인의 신분증을 내 뵈고 중앙 일용품 상사를 부지런히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계 하집이라는 중간 상인인데 애들 가락지 단추등 8종의 상품, 40여만개를 상사에다 팔기 위해 연신 견본을 가져 오군했다.

상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 그는 등록된 민영업자를 구수하게 삶아 놓고 그의 이름을 빌려서 상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여러명의 녀자를 사방으로 늘여 놓고 여기 저기에서 가락지 단추등을 눅은 값으로 사드렸다. 한편 불순한 상사 수매원까지 뢰물과 접대로 매수하면서 그는 자기의 모리적 행동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상사요 민영업자요 하고 이곳 저곳 분주히 드나들었지만 계약이 체결돼서 막상 상품을 만들어야 할 그 대목에 가서는 그는 한가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 저기 늘여 놓은 녀자들이 모아 오는 것을 앉아서 세여 받아 상사와 계약한 그 수'자가 찰때까지 모아가지고 현품을 상사에 납부하면 그가 할일을 다하는 셈이다.

현품 납부가 끝난 후 그는 139만 여원을 상사에서 받았는데 생산자들과 수집해 온 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중 계 하집의 손에 들어온 것이 69만 4.624원이다.

계 하집의 주머니에서는 단돈 한푼의 자금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부지런히 다녔다 해도 그때 신고 다니던 구두는 그대로 오늘까지 신고 다니고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를 알 수가 없다니까 조곰만 머리를 쓰면……》 그에게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악랄한 소행이 폭로된 오늘에 와서는 그 자신이 《명철》 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그의 두뇌를 아무도 《명철》 하다고 할 사람은 없지 않을가?

김 상 애

사업에 《열중》한 관리 위원장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조합 발전 전망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광범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조합 관리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낡은 사업 방법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계획 초안을 만드노라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때

송 용남 그림

제꾀에 제가 속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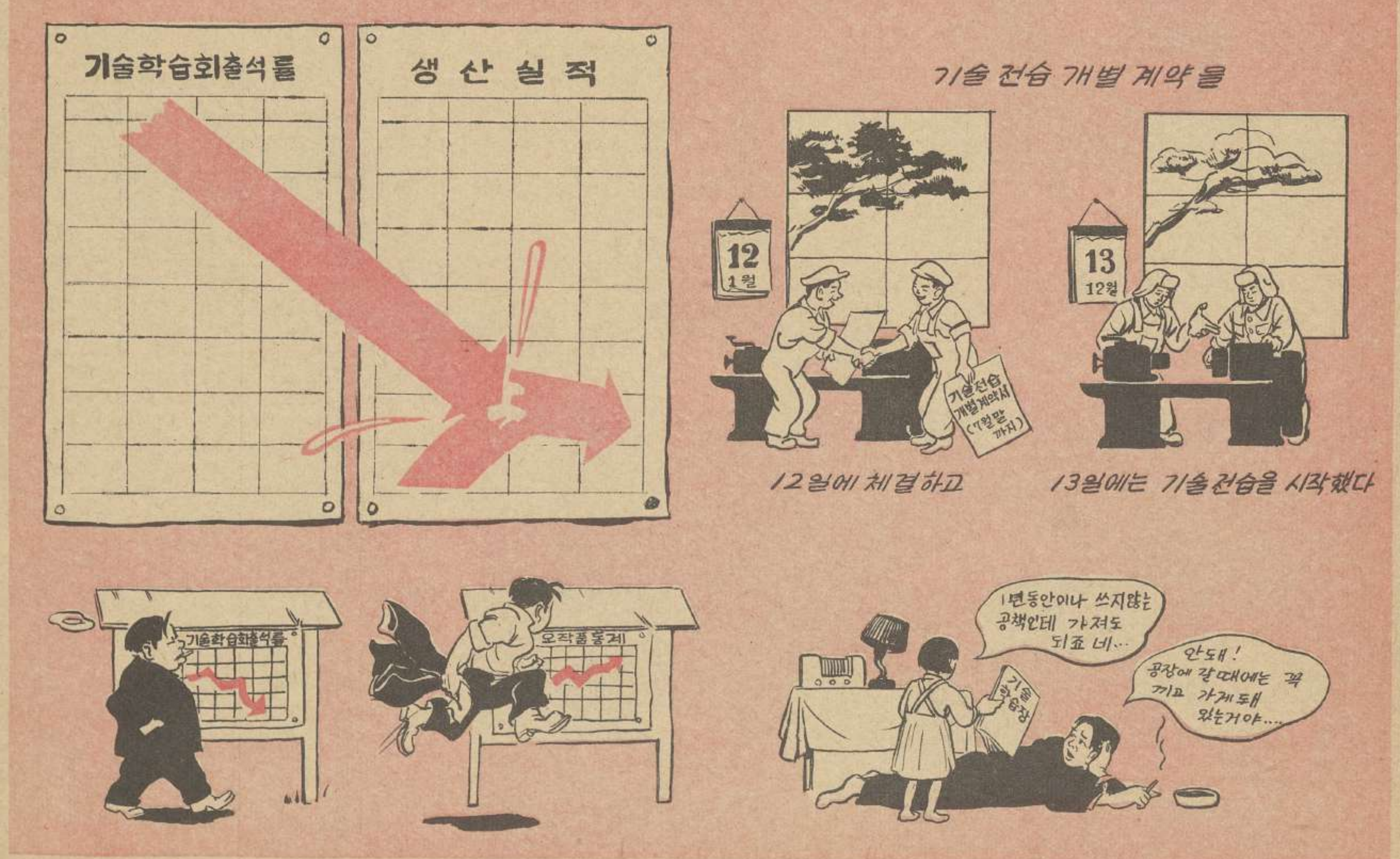
중앙 일용품 도매 상사 문을 나서는 평양시 중구역 신암동 5.1 비누 공장 주인 오 형국은 저으기 만족한 표정이였다. 그것은 벌써 전에 계약 체결하였던 중앙 상사 앞으로 1만개, 각 도 상사 앞으로 4만4,890개 도합 5만4,890개의 세탁 비누의 현품 납부가 아주 순조롭게 방금 끝났기 때문이다.

하기야 오 형국 자체로 말한다면 이번 비누에서 톡톡히 한몫을 볼 심산으로 처음부터 일정한 타산이 있었던 것만큼 납품에서 다소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였다.

시제품을 써본 후, 중앙 일용품 도매 상사와 5.1비누 공장 주인 오 형국과 사이에는 현품 납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고 이어 각 도 도매 상사들도 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였었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시 원가 계산에 밝혀졌던 것보다 돌'가루를 개당 40g씩 더 넣고 유지 성분은 그만큼 적게 들어 가도록 비누가 제작되였고 그것은 상사를 통해서 국영 소매망에 하달되게 됐고 오 형국은 아니나 다를까 거액의 부당 리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의 일이지만 그 비누를 받은 국영 상점들에서는 《이러한 세탁 비누는 팔 수 없으니 반환합니다》라는 딱지를 달고 전부 되돌아 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이런 비누를 만들었느냐고 인민들의 추궁이 대단하다는 것까지 첨부해 왔다.

기술 학습과 생산 실적과의 호상성에 관하여



홍 종호 그림

감쪽같이

중앙 일용품 도매 상사의 전 일용 잡화부장 안 계옥은 창고장 김 승춘과 배'장이 제법 잘 맞군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면 서로 서로 덮어주고 싸 주는 것이여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일이든지 어느 한쪽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으리 만큼 두 사이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 얼마전에 김 승춘은 자기가 맡고 있는 창고에서 박엽지와 문화용지를 꺼내다 팔아 먹을데 대한 것을 부장 안 계옥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안 계옥은 마음이 흡족해서 더 빨리 서두르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신양 시장 지물상 조 영술에게 표백 박엽지, 문화용지를 3차에 걸쳐서 8톤 130kg를 내다가 그나마도 국정 가격의 겨우 56%를 받고 팔아 먹었다 이때부터 두 사이에는 더욱 은밀히 친해졌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상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열이 시작되자 이자들은 부족되는 종이를 메꿔 놓기 위해서 평남 공업품 도매 상사에 가서 종이를 꿔다 쌓아 올려 놓고는 서로 마음을 놓았던 것이다.

심사는 무사히 끝났고 며칠 후 종이는 다시 평남도 공업품 도매 상사에 반환되였다. 둘이는 이걸로 감쪽같이 속여 넘겼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이들의 죄행은 오래지 않아 폭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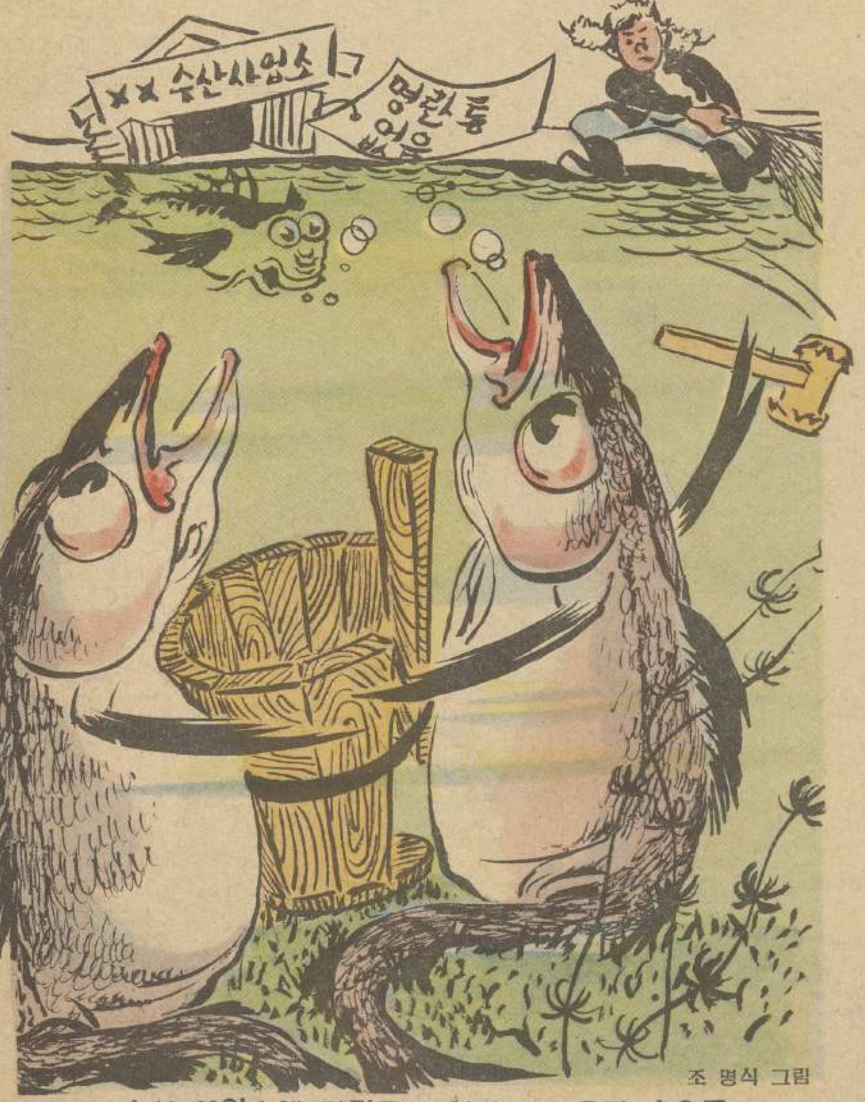
김 상 애

일부 량곡 창고들에서는 수리정비를 미리부터 하지 않는 경향들을 볼 수 있다.

창고장…어서 들어 가시오
풍작…나는 저 구멍이 마음에 들지 않소

허 능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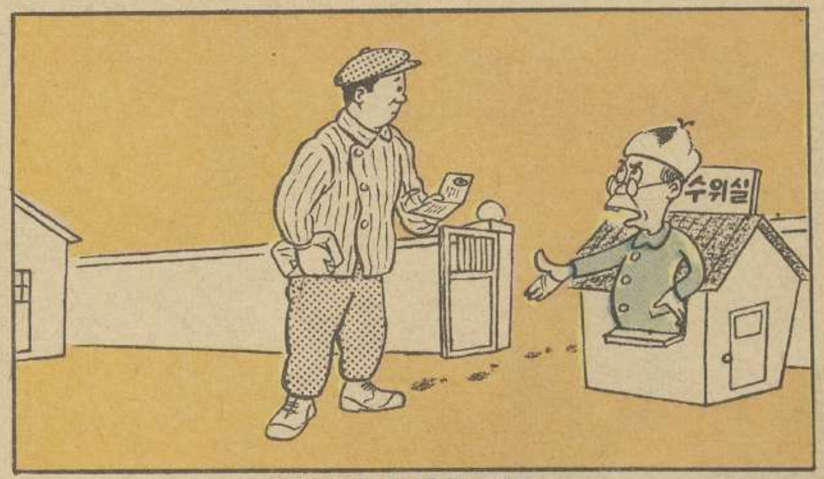
일부 수산 사업소에서는 명태 성어기를 맞이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공에 필요한 명란통, 창란통, 간유통, 덕대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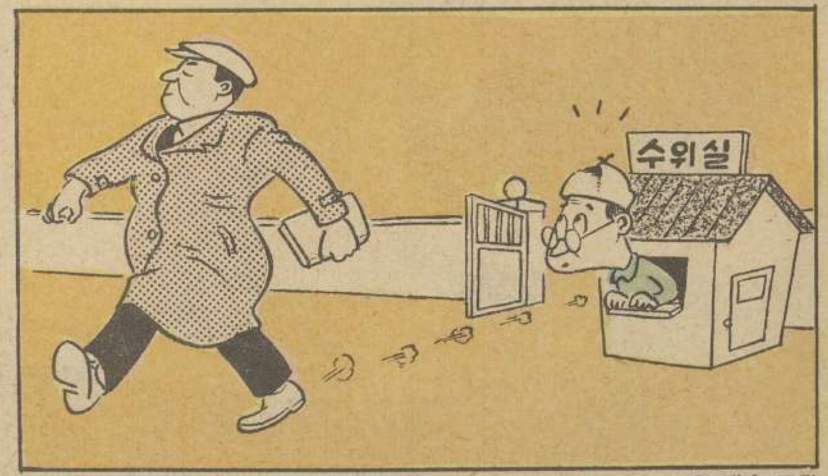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수산 사업소에 명란통이 없다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야겠군!

증명서는……



보이면 자세히 보고



안보이면 그저 그만

원 광수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12. 10 40725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12. 15 값(50원)

미군 나가라!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49 3

미 제－지도가 왜 이렇게 보일까?!
리 승만－전국에서 반미 감정이 높아졌으니까요…

홍 종호 그림